

# 중·러, 알래스카 인근 해역서 합동순찰

### 11척, 해안 접근 함대 중 최대 규모 미, 구축함·초계기 동원 활동 감시

중국과 러시아가 태평양 지역 합동 순찰에 나서면서 알래스카 인근 해역으로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초 중·러 합선 11척이 알래스카주 알류산 열도 근처에서 합동 순찰을 벌였다고 6일(현지시간) 미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함대 규모는 미 해안에 접근한 중·러 함대 중 최대 규모라고 WSJ은 언급했다. 퇴역 미 해군 대령인 브렌트 새들러 헤리티지 재

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중·러 해상순찰 활동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긴장 관계를 고려할 때 매우 도발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군은 존 매케인호, 벤폴드호, 존 핀호 등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구축함 4대와 해상초계기 등을 파견해 이들 함대의 활동을 감시했다.

미국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미군 북부사령부는 WSJ에 “우리의 항공 및 해상 자산은 미국과 캐나다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했다”며 “(러·중의) 순찰은 공해상에 머물렀고 위협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0~23일 동해에서 군함 10여척과 군용기 30여대를 동원한 ‘북부·연합-2023’ 훈련을 벌인 데 이어 양국 해

군 함대가 태평양 서부와 북부 해역에서 연합 순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국 해군 함대의 합동 순찰은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다.

중국 국방부는 합동 순찰과 관련해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며 국제정세 및 지역 정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등 서방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중·러는 미국 등 서방에 대항해 최근 들어 군사 협력을 급속히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아 북극해에 새 항로가 나타나면서 서방과 중·러 간 북극해 인근 해상 주도권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져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열차 사고 최소 28명 사망 6일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나와브사 열차 탈선 사고 현장에서 크레인인 열차를 들어 올리고 있다. 이날 신드주 카라치에서 펀자브주 라왈핀디로 향하던 급행열차가 탈선해 최소 28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 알래스카 주도 빙하붕괴 위험 저지대 주민에 홍수 대피령

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주도인 주노에서 빙하 붕괴에 따른 홍수가 우려돼 저지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기상청(NWS)은 5일 밤 주도 인근 빙하호 붕괴로 맨덴홀 호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거목이 물에 잠기는 특이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최소 건물 1동이 부서졌고 이후 저지대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다.

6일 새벽 맨덴홀 호수 수위는 2016년 기록했던 최고수위보다 3피트(91.44cm) 높아진 15피트(4.6m)에 근접했으며, 이는 적정 수위보다 5피트(152.4cm) 높은 것이라고 NWS는 밝혔다.

맨덴홀 호수 수위는 6일 오전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으나 현지 기상 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 폭우로 침수된 방글라데시 도로 위 정체된 차량



6일(현지시간) 집중 호우로 물에 잠긴 방글라데시 남동부 차토그람의 도로에 차량이 정체돼 있다. 방글라데시엔 몬순(우기) 전인 4월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캄보디아 국왕, ‘훈센 장남’ 훈 마넷 총리 지명

#### 22일 국회 표결 거쳐 총리로 취임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장남인 훈 마넷이 7일 차기 총리로 공식 지명됐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은 훈센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날 훈 마넷을 차기 총리로 지명했다.

훈 마넷은 오늘 22일로 예정된 국회 신임 투표를 거쳐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캄보디아 총리는 국왕이 국회 제1당의 추천을 받아 지명한다.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지난달 23일 총선에서 전체 의석 125개 중 120개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며 일당 지배 체제를 공고

히 유지했다. 훈센은 총선 승리 이후인 지난달 26일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훈 마넷이 새 정부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이자 육군 대장인 훈 마넷은 올해 45살로 CPP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프놈펜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1999년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뉴욕대와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각각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앞서 훈센은 2021년 12월 훈 마넷을 후계자로 지명했다. 같은 달 CPP도 그를 ‘미래의 총리 후보’로 지명하면서 후계자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 “유럽기업들, 우크라이나 이후 러시아서 140조원 이상 손실”

### 사업 매각·축소 등으로 손해 봐 러 타스통신 “빨리 철수할수록 이익”

지난해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유럽 주요 기업들이 러시아 내 사업으로 최소 1000억 유로(약 143조원)의 직접 손실을 봤다고 6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이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600개 유럽 기업의 연간 보고서와 재무제표 분석 결과 176개 기업이 이러한 규모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손실은 러시아 내 사업 매각, 폐업 또는 사업 축소 등에 따른 손상차손과 외환 관련 비용 및 기타 일회성 경비 등에 따른 것이었다.

총 손실액에는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전쟁의 간접적인 거시 경제적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 시장에서의 철수로 가장 큰 비용을 떠안은 기업들은 석유·가스 관련 그룹들이었다.

영국 BP와 셸, 프랑스 토탈에너지 등 3개사가 치른 비용 합산액만도 406억 유로에 달했다.

BP는 전쟁 개시 후 사흘 만에 러시아 국영 석유 기업 ‘로스네프트’ 지분 19.75%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55억 달러(33조원)의 비용을 보고했다. 토탈에너지는 뒤늦게 지난해 말 러시아 철수를 발표했지만 역시 148억 달러의 비용을 치렀다고 밝혔다.

에너지 기업들은 비용에 따른 손실보다 석유·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규모가 훨씬 커 이들 3

개 기업은 결과적으로 950억 유로의 이익을 냈다.

이밖에 자동차 업체들은 136억 유로, 은행·보험사·투자사 등의 금융 기업들은 175억 유로의 손실을 보고했다.

유럽 기업들의 손실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러시아가 지난 4월 핀란드의 가스 수입업체 포르툼과 포르툼의 독일 자회사 유니퍼의 러시아 내 자산 국유화에 들어가고, 뒤이어 지난해 프랑스 유제품 업체 다논과 덴마크 맥주회사 칼스버그 자산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키우 경제대학’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쟁 전 러시아에 진출해 있던 1천871개 유럽 기업 중 50% 이상이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 있다. /연합뉴스

# 폭염 못 막은 정부, 기본권 침해일까

#### 스위스 노인 여성들 정부 제소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결과 주목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에 고령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정부에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스위스 노인 여성들이 과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소속 회원들이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정부를 제소한 사건을 조명했다.

64세 이상의 스위스 여성 약 2400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 변화는 모든 스위스인에게 영향을 미치

고 있지만, 특히 자신들과 같은 노인 여성들이 가장 취약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6만1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여성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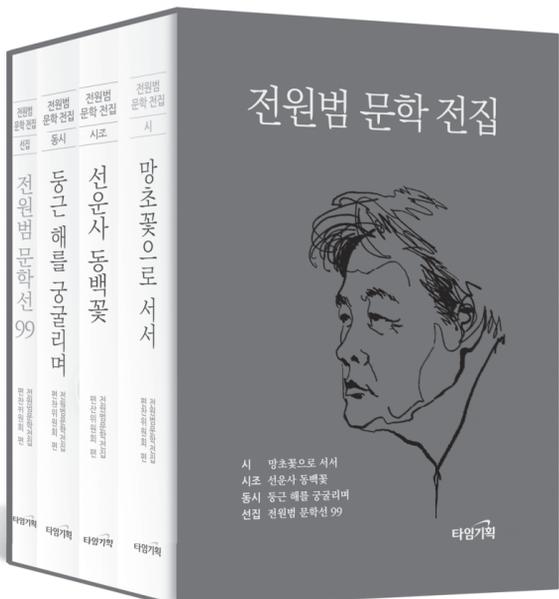
베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약 600명의 온열 질환 사망자 중 60% 이상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나이 든 여성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스위스는 지난해 기록상 가장 더운 해를 보냈다.

올해는 남부 유럽만큼 아니더라도 지난달 초 일부 알프스 지역의 기온이 화씨 98도(섭씨 36도)까지 올랐다.

애초 이 단체는 2016년 스위스 법원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스위스 대법원은 노인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역문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